

- 사업명 : 2021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 회의일시 : 2021년 11월 05일(금) 13:00 ~ 17:00
- 회의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집 위원 회의실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담아 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취약계층·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 예술인·단체의 활동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심사의 기준 역시 원로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가고, 원로예술인들을 예우하며, 원로예술인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 원로예술가와 더불어 세대 간 화합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체, 사업의 프로그램과 신청된 예산 규모에 적절하게 신청한 단체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방곡곡 등 기존사업과 유사한 기획안을 제시한 사업, 기획안과 원로예술인 참여 취지의 당위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의 배정에 있어 원로예술인들의 대우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사업의 실현가능성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는 연극·뮤지컬 51건, 음악 28건, 무용 7건, 전통예술 33건, 다원예술 7건으로 총 12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모 심의는 약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전 심의위원들이 제출서류를 개별적으로 전수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공모사업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산계획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2) 기초공연예술분야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40%)**

원로예술인을 주축으로 공연이 진행되는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하는가?

실연자 및 스태프, 행정인력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가?

**3) 수행단체의 역량(20%)**

사업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시설, 조직 등)을 갖추었는가?

기존 활동실적을 감안,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전담 행정인력을 배정하였는가?

1단계 전수검토 후 사업성과 적정예산 검토, 장르별 예산검토,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별력을 위해서 2단계로 장르별 심의위원들이 장르별·분야별로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협의하였습니다. 2단계 장르별 심의단계에서는 장르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들을 더 엄격하게 적용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예술단체가 지원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지원 대상자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장르별 사업심의에서 장르별로 적용했던 세부기준들은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 1) 연극·뮤지컬 분야

원로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었거나 원로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졌는가?

사업제안서 상에 프로그램이 신작이거나 창작된 것인가? 구성력이 우수한가?

사업제안서 상 예산편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안단체가 사업을 완수할 행정능력이 갖추어져 있는가?

#### 2) 음악 분야

원로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었으며 원로예술인의 사업참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제안서 상에 프로그램이 창작곡인가?

지역소재와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하였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검토하였는가?

#### 3) 무용 분야

사업제안서 상에 원로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었으며, 원로예술인들에게 출연기회를 확대하였는가?

무용계에 기여한 원로예술인인가?

사업제안서의 성격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프로그램이나 레파토리가 원로예술가들에게 적절한가?

#### 4) 전통예술 분야

원로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원로예술가들의 참여비율이 많은가?

타 기관 중복 사업이나 프로그램 혹은 중복 출연진이 있는 단체인가?

사업제안서의 성격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가?

프로그램의 구성이 원로 전통예술인과 비원로 전통예술인과 적절하게 되어있는가?

## 5) 다원예술 분야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있는가?

사업제안서 상에서 창의적이거나 기획·편곡·재창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사업제안서 상에서 시대정신과 역사성을 아우르고 있는가?

사업제안서 상에서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콘텐츠가 기반이 되었는가?

2단계 장르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 심의는 1단계보다 특성화·창작성 및 사업완수를 위한 행정능력부분이 더 검토되었습니다.

3단계 심의에서는 2단계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고유 목적성 달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 장르에 대한 이해, 지원사업에서 원로에 대한 예우, 지역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품 우선,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배려, 사업완수에 대한 행정역량 등을 종합토론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4단계에서는 지역별·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장르별 심의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비율 및 건수, 예산금액을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별 채점을 통해 다득점 순으로 최종결정하였고, 예비후보도 개별 채점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극·뮤지컬(11건), 음악(5건), 무용(3건), 전통예술(10건), 다원예술(3건) 등 최종 32건을 2021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작단계에서도 원로예술인의 경륜과 노하우, 현역예술인들의 참신성과 도전정신이 어우러져서 세대 간 화합과 세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가치 등을 토론하고 사색과 성찰할 수 있는 우리시대 문화예술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원로예술가와 지역문화예술가들이 깊게 참여한 고전을 현대에 맞게 재창작한 작품들 여럿과 지역에 날아드는 두루미를 소재로 다양한 실험을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 등 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역으로 보여주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문화예술인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 선정된 단체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비록 탈락한 단체들은 아쉽습니다만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고, 제시한 심의기준을 참고하셔서 내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을 통해 원로예술인의 예술가치가 재조명 받기를 바라며 세대를 이어 전승발전해 빛나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